

- 1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의 시민들은 도시의 감독 하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 2 이러한 감독은 시 자체에까지 미치는데, 시는 그것이 일반적인 도덕에 대해 제기하는 위험 때문에 검열된다.
- 3 시인들이 웃고 울거나 무절제하거나 탐욕스러운 영웅들을 보여 주는 것은 잘못이며, 그런 신을 보여 주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 4 그들은 현자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주어져야 하는 유일한 전형[본보기]이다.
- 5 시인들이 하데스를 무서운 장소로 묘사하여, 국가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민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 것 또한 잘못이다.
- 6 이 때문에 예술가와 시인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공화국이 그들에 대한 도덕성 검열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도시의 안녕에는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 발화는 정의상 대화체이다.

---

2 참여자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답하여 자신의 관점을 말할 수 있다.

---

3 이는 실제 사용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문장과 달리, 발화는 항상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Bakhtin이 발화의 '수신성'이라고 칭한 과정이다.

---

4 발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실제적이거나 가상의 청중이 있다.

---

5 모든 발화는 수신인 또는 그의 호응하는 공감에 요구되는 '두 번째 참여자'가 있다.

---

6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수신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

7 오히려 사람들은 협상, 동의, 이의 제기, 질문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

8 발화의 바로 그 구성과 형식은 그것이 의도된 청중에 좌우되기 마련이며, 당연히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1 글쓴이의 의도라는 문제는 해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 우리는 텍스트가 메시지를 숨기고 있으며, 글쓴이의 의도는 암호로서 텍스트가 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3 만약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암호화되었다면, 글쓴이의 증언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아마도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최고의 자료일 것이지만, 만약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4 분명히, 이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다.

5 의도하지 않은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다.

6 그러나 숨겨져 있는,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또한 '글쓴이의 의도'라는 범주 하에 문학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표현('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표현)은 기능을 가진다.

7 일부는 글쓴이의 의도에서 문화적 의도로, 혹은 심지어 독자의 의도로 방향을 바꾼다.

8 '누구의 의도인가?'라는 질문은 규범, 가치, 관심사의 문제지만, 그 활동은 동일한데,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목적이다.

1 의사소통의 핵심 원리는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2 우리의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현실의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이다.

3 대신, 그것들은 어떤 것을 대신하거나 상징한다.

4 사람, 맥락,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내재하여 있지 않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5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차 프랑스에 가서 메뉴에 있는 'poisson'이라는 단어를 본다고 하자.

6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징이 영어 상징인 'fish'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7 그 두 단어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같은 대상을 상징한다.

8 만약 그 단어가 어떻게 보이는데 따라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생선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단어가 'poison'이라는 영어 단어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사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지도 모른다.

- 9 메뉴에 생선 그림을 넣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그림은 대상의 상징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실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